

문화재청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나주 선정

전국 5곳 선정... 국비 1억 투입
국가유산 지역 삶의 질 향상 위해
정주환경 개선·역사 경관 조성



나주시가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선정됐다. 나주 금성관 일원.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원도심 국가유산 주변에 살아
가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나주시는 문화재청에서 공모한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지정 구역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낙후된 정주기반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국가유산 보수·정비 위주 기존 예산 지원과 규제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과 공존하고 상생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화재청은 전국 13개 지자체 중 서류 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나주시를 비롯한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 첫 해인 올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준비 단계로 나주시는 올해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정주환경 개선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 예산을 문화

재청에 요청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주변 마을정주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는 국가유산이 밀집된 읍성권,

원도심 권역 골목의 노후된 담장 정비, 전선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과 국가유산과 어울리는 역사 경관 조성을 계획 중이다. 공원 인프라 개선, 간판 정비, 유희공

간 활용 개발 등 생활문화 경관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가유산으로 인해 여러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이 이제는 국가유산 덕분에 삶의 질이 풍요로워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한전KDN이 창립 32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 창립 32주년 맞아 사회공헌활동

기금 모아 지역 농산물 구매
지역 복지시설 3곳에 기부

한전KDN이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부 활동을 벌이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전KDN은 회사 창립기념 32주년을 기념해 농가 소득증대·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생산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을 시행했다.

한전KDN 본사 임직원들이 모은 기금으로 지역농산물을 구매해 광주·전남지역 복지시설 3곳에 기부했다.

전국 사업소에서도 소재 지역 여건에 맞는 봉사활동과 함께 기부활동을 시행했다.

한전KDN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와 전 북사업처는 아동보육시설을 찾아 보육아동을 위한 물품을 기부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지속적인 쌀 소비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공기업 성장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에 이웃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김용의 기자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나주시가 사회적경제 분야 창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 육성에 나선다.

나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4년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수강 대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으로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총 2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오는 5월9일부터 7월4일까지 주 1회(2시간),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총 9회차 중 7회 이상 출석 시 수료증을 교부하고, 비즈니스 모델 발표를 통해 우수 수료생(팀) 2개소를 선발해 초기창업자금 3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 빛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는 7월11일 까지 빛가람호수공원 무대에서 힐링체조교실을 운영 한다.

나주시 제공

빛가람동, 힐링체조교실 운영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나주시 빛가람동이 주민들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섰다.

22일 나주시 빛가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임주호·나경아)에 따르

면 오는 7월11일까지 빛가람호수공원 내 야외무대에서 '몸짱! 마음짱! 힐링체조교실(이하 체조교실)'을 진행한다.

이번 체조교실은 김미애 생활지도사 지도하에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총 25회 진행한다.

임주호 빛가람동장은 "모두가 행복한 빛가람동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빛가람동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힐링체조교실이 주민들의 신체·정서적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힐링체조교실은 빛가람동 주민과의 대화 및 지사협 회의를 통해 특화사업으로 선정됐다.

나주=조대봉 기자

민·관 사례관리 수행인력 대상 역량강화 교육

공감·의사소통 능력 제고

나주시는 최근 영강동어울림센터에서 민·관 사례관리 실무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소진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면 상담이 많은 사례관리 실무자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및 효과

적인 의사소통 기술 습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야기&드라마 치료' 지경주 연구소장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감정노동과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치리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스킵을 배울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이어

졌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 담당자는 "그동안 대상자 상담과 복지업무를 수행하는데 쌓인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복수 나주시 행정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이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